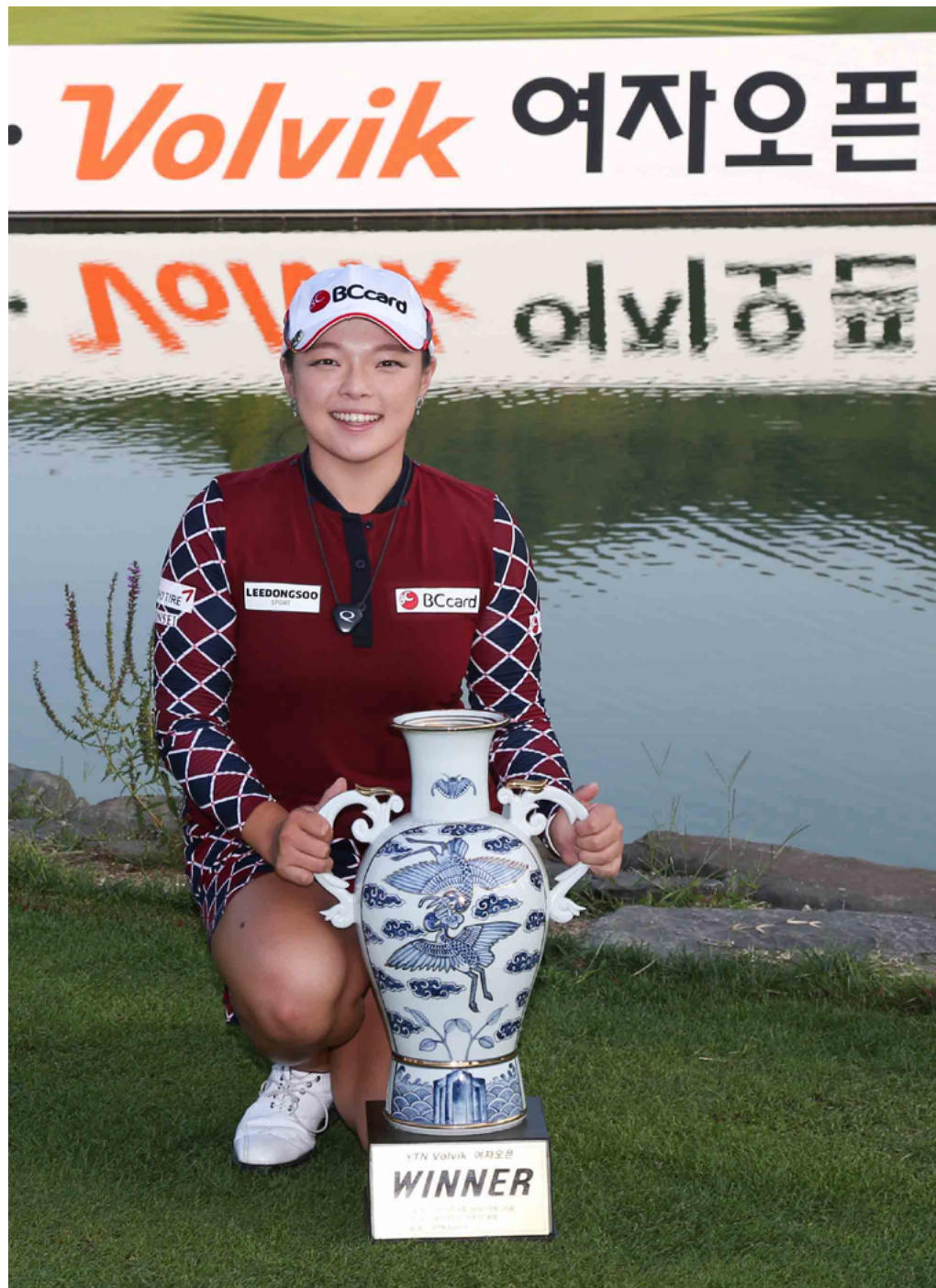


오케이온골프웹진을 스마트폰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도비아크로벳리더(Adobe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어도비아크로벳리더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설치한 후 웹진을 보시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LPGA 선수 장하나, 볼빅 여자골프 우승

국내무대 출전해 모두 4위 이내... 시즌 상금 4억원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진출한 장하나(23·비씨카드)는 고국에서 나들이를 할 때마다 많은 상금을 챙긴다.

장 하나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양주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6천812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YTN·볼빅여자오픈 최종 3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00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상금 1억원을 보탠 장 하나는 국내에서만 상금 3억8천389만원을 벌었다. LPGA투어에서 챙긴 상금 65만 달러(약 7억7천600만원)의 절반에 가깝다. 이는 KLPGA투어 상금랭킹 8위에 해당한다.

5개 대회 평균 타수도 70대 초반인 국내 선수를 모조리 제치고 60대 후반을 기록했다.

하지만 장 하나는 시즌 대회 가운데 30% 이상 출전해야 각종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규정에 걸려 상금랭킹에는 포함되지 못한다.

빠른 회복! 운동전/사후후근육, 관절에 바르세요

플렉스-파워

RECOVERY CREAM

멘톨 / 방부제 / 끈적임 zero

MSM - 관절 통증/염증 완화

글루코사민 - 연골 생성/분해 억제

우리 인더 TV골프 한판 붙을까?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정확한 구질
현장감 넘치는 그래픽과 사운드
연습과 실전 리운팅을 동시에!

Indoor TV Golf



박성현, KDB대우증권 클래식 우승



이수그룹 제37회 KLPGA 챔피언십, 안신애 우승



제31회 신한동해오픈, 안병훈 우승 (관련기사 2면)

박성현, KDB대우증권 클래식 우승



2015시즌 스물세 번째 대회인 'KDB 대우증권 클래식 2015'(총상금 6억 원, 우승상금 1억2천만 원)가 지난달 18일(금)부터 사흘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엘리시안 강촌컨트리클럽(파72 / 6,450야드)에서 열렸다. 이날 박성현이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박성현은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장타를 앞세워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4개를 잡아내 3타를 줄였다.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박성현은 치열한 접전을 펼친 김혜운 등 2위 그룹을 2타차로 따돌렸다. 이로서 우승 상금 1억2천만원을 받은 박성현은 시즌 상금 5억원을 쌓아 상금 랭킹 5위 안으로 진입했다.

박성현은 또 같은 챔피언즈에서 경기한 상금 1위 전인지의 시즌 5승도 저지하고 남은 6개 대회에서 상금왕 레이스 역전 가능성을 높인 것. 이날 전인지는 퍼트 난조에 빠지면서 3타를 잃어 합계 7언더파로 공동 11위를 기록했다. 공동 선두로 3라운드에 나선 박성현은 전반엔 특유의 장타를 휘두르며 버디 기회를 만들었지만 퍼트 난조로 오히려 1타를 잃었다. 이 사이 김혜운이 장거리 퍼트를 성공시키며 14번홀까지 보기 없이 버디 4개를 골라내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파 5, 17번홀에서는 또 한차례 행운이 찾아왔다. 박성현은 티샷이 오른쪽으로 밀렸지만 카트 도로를 맞고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두 번째샷으로 그린을 공략해 이글퍼트를 너무 길게 치는 바람에 파에 그쳤지만 계속 2타차 선두를 유지했다. 박성현은 파 3, 18번홀에선 티샷을 그린 위에 올린 뒤 2퍼트로 돌아오며 결국 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한편, 주최측인 KDB 대우증권은 2011년부터 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구호기금을 마련해 왔다. 올해도 전 라운드 17번홀(파5)에서 선수들의 티샷 거리를 1미터 당 1천 원으로 환산해 적절한 기금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KLPGA

이수그룹 제37회 KLPGA 챔피언십, 안신애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이수그룹 제37회 KLPGA 챔피언십에서 '미녀스타' 안신애가 대역전극으로 5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도 여주 페럼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에서 안신애는 보기 없이 5타를 줄이며 합계 8언더파 280타 공동 2위로 대회를 먼저 마쳤다. 하지만 선두였던 이민영과 이정민, 서연정이란히 8언더파로 4라운드를 마치면서 안신애를 포함한 4명이 연장전에 돌입했다. 파5 18번 홀에서 진행된 연장 1차전에서는 네 명이 모두 파를 기록, 핀 위치를 옮긴 뒤치른 두 번째 연장전에서 안신애와 서연정이 버디를 낚았다. 반면 이정민과 이민영이 파에 그치며 연장 승부에서 그만 탈락했다. 안신애와 서연정의 승부로 좁혀진 채 세

번째 연장전에서 모두 파를 기록해 4차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안신애는 정교한 아이언샷을 앞세워 세 번째 샷을 홀 1m 이내로 붙였다. 이어 서연정이 3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실패했다. 안신애는 침착하게 버디를 성공, 2010년 이후 5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했다. 안신애는 생애 첫 메이저대회 정상에 올랐다. 개인 통산 3승째를 기록했고, 우승 상금 1억 4,000만원과 우승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4년간 출전권 보장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서연정은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날 암을 이겨내고 우승 도전에 나선 이민영은 마지막 날 2타를 잃고 2차 연장전에서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정민도 마지막 날 컨디션 난조로 시즌 4승 도전에 실패했다.



'한화금융 클래식 2015'(총상금 12억 원, 우승상금 3억 원)가 지난달 3일(목)부터 나흘간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골든베이 골프앤리조트(파72/6,631야드)에서 막을 올렸다. 우승 상금 3억원의 주인공은 노무라 하루(일본)였다. 한화금융 클래식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노무라는 버디 없이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로 3타를 잃었다. 그러나 4타차 선두였던 배선우가 7타를 잃고 부진해 합계 1언더파 287타로 연장에 돌입했다. 파5 18번 홀에서 열린 연장 1차전에서 승부가갈렸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노무라 하루(23, 한화). 그녀에게는 이날 기적 같은 하루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와이어투와이어로 생애 첫 승을 기대했던 배선우가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또 준우승에 머물러, 우승 상금 3억 원의 영광은 KLPGA에 첫 출전한 노무라 하루에게 돌아간 것. KLPGA 한화금융클래식의 최종라운드는 어려웠던 3라운드 보다 난이도가 더 높게 조정 됐다. 컷을 통과한 62명의 선수 중 최종라운드에서 언더파를 기록한 선수는 단한명도 없었다. 정예나 지은희의 1오버파가 가장 좋은 성적이다.

노무라 하루, 한화금융클래식 우승 차지



코오롱 제58회 한국오픈, 이경훈 국내 무대 첫 승



이경훈(24, CJ오쇼핑)이 코오롱 제58회 한국오픈 (총 상금 12억원, 우승상금 3억원) 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으며 KPGA 코리안투어 첫 승과 함께 내셔널 타이틀을 획득했다.

13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우정힐스컨트리클럽(파71 / 7,22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이경훈은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2개를 묶어 5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13언더파271타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국오픈에서 두 자릿수 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11년 16언더파 268타로 우승을 차지한 미국의 리키 파올러(27) 이후 4년만이다.

우승 상금 3억원을 거머쥔 이경훈은 단숨에 KPGA 코리안투어 상금순위 선두에 올라섰다.

2위 그룹에 2타 차 앞선 채로 최종라운드에서 이경훈은 2번홀 보기로 1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낸 송영한(24, 신한금융그룹)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하지만 5번 홀에서 두 번의 샷만으로 그린에 올린 뒤 1.5m 이글 퍼트를 성공해 다시 선두로 치고 올라갔다. 이후 7번홀과 8번홀, 9번홀 세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갔다.

12번홀 보기로 주춤했지만 14번홀과 15번홀 두 홀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린 이경훈은 17번홀에서 티 샷이 우측으로 밀리며 카트 도로 바깥으로 나가 위기를 맞았으나 52도 웨지로 샷을 해 페어웨이 안으로 공을 보낸 뒤 94m 거리에서 58도 웨지로 한 세 번째 샷이 핀 1m에 붙어 무난히 파를 잡아낸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우승 직후 이경훈은 “그토록 원하던 국내무대 우승을 달성해 무척 감격스럽다. 사실 어제 잠을 좀 설치면서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우승을 이뤄 기쁘다.” 고 소감을 전했다.

제31회 신한동해오픈, 안병훈 국내 무대 첫 우승 달성

안병훈(24)이 제31회 신한동해오픈 (총상금 10억원, 우승상금 2억) 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베어즈 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1 / 6,95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안병훈은 보기 없이 4개의 버디를 속아내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12언더파 272타로 국내 무대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단짝친구 노승열과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들어선 안병훈은 경기 내내 노승열과 치열한 접전을 보여 갤러리들의 환성을 자아냈다.

안병훈은 줄곧 노승열을 추격하는 입장이었다. 노승열이 2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낸 사이 안병훈은 같은 홀에서 투온에 성공하고도 3퍼트로 타수를 줄이지 못했으나 4번홀에서 버디를 기록, 노승열과 균형을 맞췄다. 마지막 18번홀에서 안병훈이 먼저 무난하

게파로 마무리한 사이 노승열은 1.5m 파 퍼트가 홀을 돌고 나오며 보기를 적어냈다. 길었던 승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우승이 확정된 이후 안병훈은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안병훈은 “내가 버디를 잡아내면서 우승한게 아니라 친구인 승열이가 실수를 해서 우승한 것이기 때문에 우승의 기쁨보다는 승열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 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009년 제52회 한국오픈 1, 2라운드에서 노승열과 함께 경기한 뒤 6년 만에 동반 플레이를 한 안병훈은 “친구인 승열이와 즐겁고재미있게 경기했다. 멋진 대회로 기억될 것 같다.” 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올림픽참가도 이루고 싶고 이후 미PGA투어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향후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





OKongolf Club Championship

네트워크 온라인게임으로 진행되는 OK온골프 스크린골프대회로써 각매장, 동호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OK온골프 챔피언십이라 칭하며, 각 클럽대회를 통하여 매장, 동호회의 친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웅장함과 코스의 정교함이 돋보이는 BEST PLACE 플레이어스 골프클럽(The Players Golf Club)



플레이어스 골프클럽(The Players Golf Club)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73-1번지 위치한다. 서울에서 경춘고속도로 남 춘천 IC를 진출하면 50분이 채 안되는 거리다. 각각의 9홀 코스가 자리잡은 지형적 특성을 따라 밸리코스(3,562야드,파36), 레이크코스(3,571야드,파36), 마운틴코스(3,553야드,파36)는 27홀 프리미엄 퍼블릭 코스이다.

세련된 클럽하우스와 최고의 코스

최고의 코스와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클럽을 지칭하는 전부는 아니다. 'THE Players'는 다른 클럽들이 고수하고 있는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고 잠시 머물더라도 즐거운 기억을 주는 'THE Players'만의 편안하고 배려 깊은 서비스가 돋보인다.

코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는 자연친화적이면서도 모던한 건축미학을 보여 준다. 완벽한 라운딩을 위한 준비와 라운딩 후의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며, 소규모 모임부터 대규모 공식행사까지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연회장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코스 설계는 타 골프장과 달리 국내 코스 설계 거장 두 명을 모두 섭외하여 공을 들인 코스이다. 송호(송호골프디자인그룹) 대표가 루트플랜을 했으며, 권동영(권동영골프디자인연구소) 대표가 조형 설계를 맡았다.

주어진 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공략 루트를 만드는 송호와 자연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미학적인 코스 조형에 뛰어난 권동영이란 두 설계가의 장점이 한 코스에서 시너지를 낸다.

"PLAYERS"라는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긴 전장과 난이도 있는 그린플

레이를 특징으로 하는 코스 컨셉은 중상급자들의 샷 밸류를 측정할 수 있는 시합코스로서 손색이 없으며 실제 내장객들의 대부분은 젊은 로우 핸디캡 골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 자연림을 잘 활용하여 신생코스라는 느낌보다는 오랜 고목들로 둘러싸여 있는 홀들이 많고 자연림과 더불어 클럽하우스 앞에 자리한 소나무와 스타트 하우스 주변 특수목들 또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코스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또한 다른 골프장의 파5홀들과 달리 코스 내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플레이어스의 파5홀들은 코스완성도가 대단히 높으며 특히 LPGA 나비스코 챔피언십의 마지막 홀을 연상시키는 레이크

9번홀은 아일랜드 파5홀로서 그 난이도 또한 상당하다.

베스트 뉴 코스, 한국 10대 뉴 코스 선정

[골프다이제스트]는 2년마다 개장 2년 미만의 신설 코스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2014~15대한민국 베스트 뉴 코스' (2014~2015 KOREA'S BEST NEW COURSES)에 플레이어스 골프클럽이 선정됐다.

이는 골프다이제스트가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는 코스 패널 사이트를 통한 147명 패널들의 코스 평가에서 나온 결과다. 지난 2012년9월부터 최근까지 개장한 코스를 대상으로 했다.

올해 '베스트 뉴 코스' 들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자면 '자연미의 극대화'에

있다.

[골프매거진]은 2년마다 선정 발표하고 있는 국내 골프 코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 10대 뉴 코스' (2014 TOP 10 NEW COURSES IN KOREA)에 플레이어스 골프클럽이 선정 됐다.

2014년 4월30일까지 정식 개장한 코스를 대상으로 엄격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 특히 골프업계와 학계, 코스설계가, 미디어종사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48명이 패널로 참여해 공정성을 높였으며, "올해 선정된 코스들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에 초점을 둔 코스 설계가 두드러지며, 2년이 채 안된 신생 코스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워 편안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골퍼들의 탄성과 탄식이 동시에 교차하는 흥미진진한 명승부가 벌어지는 진정한 경기장을 지향하는 곳이 바로 플레이어스다.



연기의 달인, 배우 정동환

TV와 스크린을 바쁘게 오가면서도 연극 무대를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연극쟁이. 모든 것을 연기로 승화할것만 같은 배우. 정동환에게서 풍기는 이미지가.

완연하게 깊어진 가을, '화수분' 같은 그의 연기 이야기를 들어보자.

달인이 들려주는 연극이야기

자신의 일을 꾸준히 오래하고 더 잘 해 나가는 사람을 '달인' 이라고 한다. 그는 1969년 연극무대에 데뷔해 연기인생 40년이 넘는 깊은 내공의 소유자이다. 그의 연기인생처럼 유서깊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배우대담행사가 얼마전에 있었다.

"25년전에 작가의 본고장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초청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연출가인 임영웅 선생님을 위한 일기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임영웅 선생님은 연극계의 가장 어른중 한분이시고, 후배로써 선배님께 드릴 수 있는게 뭔가를 생각하며 공연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도와드린 거지요. 너무 고전작품에만 출연하는것이 아닌가?란 얘기를 듣는데, 고전은 언제 누구에게나 계층과 시대를 초월하기에 고전으로 남는 것이고, 고전이란 말을 붙이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고전을 기반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전에 참여한다는 건, 옛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우리가 가진 인간 본성의, 인간 내면에 있는 모든것을 고전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로 얼마든지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거죠."

바쁜 드라마 일정 가운데서도 1년에 연극한작품은 어떻게든 출연하는 것이 오랜 세월 몸에 뱀다. 게다가 그가 선택한 연극들은 대체로 '셴 연극'으로 불리는 작품이다. 최근에는 10월 공연 예정인 '태풍기담'을 준비중이다.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원작으로 한국의 성기웅작가와 일본인 타다준노스케가연출한 한 일합작으로 각색된 작품이예요.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베니스의 두 도시 감성을 한국과 일본의 감성으로 녹여냈는데 원작에는 '절대용서'라는 감성이 들어있죠. 대일감정이 좋지 않기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감할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연기'는 쓰여진 작품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흥내를 내거나 반복하거나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배우 본연의 창작과정을 통해 재탄생되어지는것 이기에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연기에 대한 깊은 철학과 내공이 느껴지는 그의 답변이다. 그럴수록 그의 연기철학을 더 듣고 싶어지게 된다. 쟁쟁한 이

미지에서풍기듯 <최고다 이순신>에서처럼 다정한 아버지역할 뿐만아니라 <나인>에서의 악역 또한 범접하지 못할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렇게 '선역'과 '악역'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배우는 드물다.

"연기인생 40년이 넘었는데, 다른 연출이나 극작가 쪽으로의 욕심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익숙해 져오니 다른 것을 해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평생을 해도 첫 무대에 선 것처럼 설레임과 어려움이 공존하는 것이 배우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평생을 연구해야 하는, 끝은 없는게 아닌가란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해본 연극이 아일랜드 여류작가 오거스타 그레고리의 <동이틀 때>라는 작품인데, 노경식 선생이 원작을 한국적으로 변안한 연극이었지요. 50년 전이지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렇게 바쁜일정중에도 연극을 쉬지 않는 이유는 연극은 그의 신념이자 산소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극이라는건 사람은 무엇이며, 내 영혼의 소통일 뿐만아니라 그 안에 뭐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난 영원히 죽지 않을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차이가 있듯이 내가 될 잘했고 못했는가를 생각하는 공간이자 사람다움을 배우는 공간이죠. 연극하는 사람들은 '왜 연극을 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신념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눔을 통해 인생의 답을 찾다

그는 '태화복지재단'과 인천 보훈지청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힘들고 궁핍한 삶을 살았던 그가 남을 돕는 선행에 관심을 갖게된 건 어찌보면 자연스런 것이다.

"태화복지재단은 1920년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재단으로 실제 먹고 살기 어려운 어린이나 여성들을 위한 장치가 많이 되어있지 않았던 때 설립되었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 어디든지 봉사와 나눔의 선행을 하는건데, 제가 큰 역할을 하는건아니고, 재단이 이와같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연예인 골프단의 재원들로 써포트 하는 역할이예요. 인천 보훈지청은 '보비스'(Benefit of Visiting Service)로 불리는데 6.25참전용사중고령인 분들은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 목욕도

시켜드리고, 치료도 해드리고 하는 등의 활동을 해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함에도 많은 분들이 이와같은 활동을 한다는 것을 모르기에 알리는 역할이 저의 몫이죠. 또한 선행을 통해 나 자신도 살필 수 있으니 오히려 제가 도움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죠.

'포이보스'는 원래 연예인 자선 골프단이었는데, 연예인들이 기본적으로 시간도 없고, 유대관계를 만들기가 어렵기에 골프를 치면서 좋은일을 할만한게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속해있는 복지재단쪽의 일 뿐만 아니라 어느지역 어느단체에서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앞

장서서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잘 알려진 '초록우산'이나 '노란우산'같은 큰 재단에서의 요청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손가락을 얹는다고 보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능동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움직이고 있어서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곤궁하고 궁핍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눔을 통해 '사는게 무엇인가'에 관한 답을 얻게 되었죠. 연기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주인이 돼서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배우로써 항상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끈임없이 자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배우로써 항상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끈임없이 자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거죠.



캘러웨이골프, 빅버사 알파 816 시리즈 출시

듀얼 디스턴스 챔버(Dual Distance Chambers) 기술로 다양한 구질 조절
R-MOTO 페이스 기술에 진화된 그래비티 코어로 비거리 늘려

지난 해 그래비티 코어라는 신기술로 골퍼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빅버사 알파 815 드라이버가 더욱 진보된 기술과 강렬한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캘러웨이골프(www.callawaygolfkorea.co.kr)는 중상급자를 위한 빅버사 알파(BigBertha Alpha) 816 드라이버와 페어웨이 우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빅버사 알파 816 ◆◆(더블 블랙 다이아몬드) 드라이버의 핵심 기술은 듀얼 디스턴스 챔버(Dual Distance Chambers) 기술이다. 이전 모델에 있던 그래비티 코어(Gravity Core)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어, 구질, 스핀과 탄도를 골퍼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드라이버 헤드 솔 부분에 그래비티 코어를 삽입할 수 있는 챔버(Chamber)가 토크와 힐측에 2개 있다. 스트레이트 또는 페이드 구질을 원하면 토크 측으로, 드로우 구질을 원하면 힐 측으로 그래비티 코어를 삽입하여 골퍼가 원하는 구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MFS골프 투어통산 80승 달성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여주 페럼CC에서 펼쳐진 KLGPA 이수그룹 제 37회 KPGA챔피언십에서 안신애 프로가 5년만의 감격 우승을 거두었다. 안신애 프로는 이번 우승으로 메이저대회 우승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오랜 있었던 실력난관에 종지부를 찍었다. 안신애 프로는 이번 우승 당시 MFS골프의 MATRIX IRUDA 아이언샤프트와 MATRIX IRUDA 하이브리드

샤프트를 사용하여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안신애 프로는 지난 시즌 줄곧 MATRIX IRUDA 아이언샤프트를 장착하였고, 올 초부터는 하이브리드에만 MATRIX IRUDA 제품을 사용하였다. 이후 하이원리조트오픈부터 다시 MATRIX IRUDA 아이언샤프트를 사용하여 3번째 대회 만에 우승을 이루었다.

안신애 프로가 사용한 MATRIX IRUDA 제품은 '이루었

다, '성취하였다'라는 의미의 순우리말 제품이다. 미국에서는 발매되지 않은 순수 한국형 퍼팅전용샤프트로, 안신애 프로를 포함해 2014년 KPGA 제주삼다수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윤채영 프로도 당시 사용했을 만큼 많은 투어선수들의 사랑을 받았다.

안신애 프로의 이번 우승으로 웃음을 짓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MFS골프의 전재홍 대표이다. MFS골프는 안신애 프로를 포함해 9월 초PGA 투어Deutsche Bank Championship에서 우승한 리키파울러 선수를 통해 2주 연속 투어대회 우승을 기록하며 뛰어난 제품력과 퍼포먼스를 입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신애 프로가 우승한 바로 그 주 LPGA메이저대회인 애비앙 챔피언십에서는 이미향 프로가 2라운드까지 선두를 지키다 아쉽게 최종 4위를 차지하며 활약을 펼쳤다. 현재 MFS골프의 샤프트를 사용하는 선수들은 전세계 150여 명이며, 국내에서는 안신애 프로를 비롯하여 김민호, 전인지, 서하경, 강예린, 안시현, 홍진주, 김희망, 박지영, 김소이 등 많은 선수들이 MFS의 클럽 및 샤프트를 사용 중이다.

문의 : 02-394-0008



테일러메이드, M1 드라이버 출시

테일러메이드 코리아(대표이사: 마크 셸던-알렌)는 모든 골퍼들에게 최상의 튜닝으로 최대 비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클럽, 'M1 드라이버 및 페어웨이 우드, 레스큐 시리즈'를 출시한다.

모든 골퍼들은 각자 자기만의 스윙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스윙 스타일에 따라 최대 비거리를 내기 위해 원하는 요소는 다 다르기 마련이다. 이렇듯 지금까지 하나의 드라이버로 모든 골퍼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여 테일러 메이드는 이러한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혁신적인 클럽을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M1 드라이버는 멀티소재 설계의 M에서 클럽 이름을 채용하였으며, 이 멀티소재 설계를 통한 비거리 향상이 이번 M1시리즈의 핵심 포인트이다. 또한 새롭게 선보인 T-트랙 튜닝 시스템은 정교한 셀프 튜닝을 제공하여 최상의 설정으로 최대 비거리를 제공한다.

크라운의 무게를 낮춰 무게중심을 극한적으로 낮게 만들며, 더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로 향상된 볼 스피드는 최대 비거리를 선사한다.

테일러메이드의 브라이언 바젤(Brian Bazzel)은 "모든 골퍼들에게 최상의 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카본 컴포지트 크라운 소재를 개발했다. 이 멀티소재 설계는 골퍼들에게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거리를 선사할 것이며, 메탈우드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라고 전했다.



스윙폼 교정과 체중이동

Q. 제가 보기에는 다운스윙시 몸이 약간 내려가는거같구요 그리고 임팩트시 체중이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어떻게 잘못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쁜 스윙을 가지고 싶어요.



A. 안녕하세요. 배일성 프로입니다.

이쁜 스윙을 가지고 싶다고 하셨네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다운 스윙시 몸이 약간(?) 내려가는 것과 임팩트시 체중이 뒤에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볼을 잘 치는 것과 이쁜 스윙을 가지는 것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좋은 스윙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할 확률이 낮아지겠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운 스윙시 몸이 많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뒷땅을 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고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아이언 스윙과 드라이버 스윙을 각각 올려 주셨는데요. 아이언 스윙을 보면 다운 스윙시 스윙의 축이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몸을 쓰는 이유는 파워를 더 내기 위해서 힘을 가하다보니 몸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연습 스윙을 쉬지말고 반복해서 스윙의 축이 머리와 등뼈가 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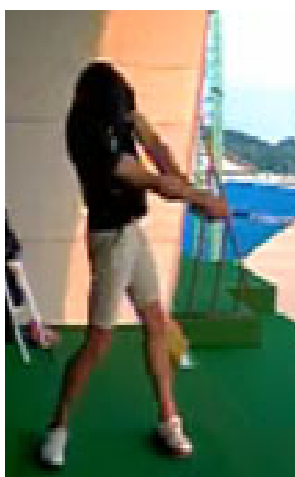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스윙하는 것이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연속적으로 스윙을 하다 보면 머리와 등뼈가 스윙의 축이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해서 스윙의 축이 유지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점점 스윙을 빨리 해서 최대한의 스피드로 연속 스윙을 해도 스윙의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체중이 뒤에 남는 문제까지 한번에 교정을 하려면 연습스윙을 연속으로 할 때 왼발과 오른발의 뒷꿈치를 들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백스윙 시 오른발에 왔다가 다운스윙 시 왼발로 가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가 설명드리자면 백스윙 시는 오른발이 축이 되고 다운 스윙 시는 왼발이 축이 되는 느낌이죠.

회원님의 스윙을 비교해 보면 타이거우

즈는 오른발의 뒷꿈치가 들려 있는데 호날정성님은 왼발이 들려있는 것 같네요. 손목의 액션은 거의 프로수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ㅋㅋ 전체적인 스윙에서 스윙의 축을 유지하고 스윙밸런스를 제대로 잡는다면 다른 것은 크게 교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구력이 얼마나 되었는지 핸디캡이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지만 조금만 정진하면 좋은 골퍼가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우즈와의 스윙비교



배일성프로
성결대학교 골프 겸임 교수 역임
안양 그린파워 헤드프로 역임
Nicklaus/Flick Golf School 수료
잭 니클러스 골프 센터 리드 인스트럭트

일산 드래곤 골프클럽내 위치한 야외 스크린 Top골프 일산점



드래곤 골프클럽은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골프연습장으로 골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로 좀 더 쉽고 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220야드의 드라이빙레인지와 전자석 오토타입시스템, 전천후 냉난방 시스템을 비롯 유능한 코치, 최고의 부대 시설을 자랑하며 벙커연습장, 퍼팅연습장, 최신장비의 휘트니스 클럽, 최고급 원목 락카장, 천연 암반 광천수를 활용한 남녀 욕사우나를 완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드래곤 골프클럽내 위치한 야외 스크린 Top골프를 소개한다.

Top골프는 지난 6월 1일 오픈해 매장 자체적으로 행사나 이벤트를 기획해 고객확보를 유도했고, 초고속카메라의 정밀한 시스템과 인도어TV골프의 장점이 결합돼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있다.

“실내에서 플레이하면 (공을)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는데, 한번에 2~3게임 연속으로 플레이 했을 때 오는 피로감이 그에 따른 것입니다. 실내 공간마다 공기청정기를 완비해 놓은 곳이 드물어요. ‘취미와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게 골퍼인데 답답한 실내공간에서는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Top골프 박재영대표는 일주일에 4~5회 정도 골프를 즐기는 스크린 골프 마니아였다. 퇴직 후 사업을 구상중에 수지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오케이온 골프’를 접하였고 그 장점에 매료돼 직접 매장 운영에 뛰어들었다. Top골프를 계기로 매장을 더 운영해 보고 싶다는 그다.

“4개월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어요. 36개를 오버하시던 분이 최근 10개 이내로 실력이 향상되었

죠. 저는 일부러 연습시간을 많이 드리지 않는 편인데, 본인의 스윙을 바로 확인하며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게임성과 골프연습에 주효하다는 거죠. 상급자는 공의 구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오케이온 만의 장점이 많은데, 기계도 괜찮고 좋은 시스템에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AS도 많이 부르곤 했는데, 현재는 큰 불편없이 운영하고 있고 서로 본사와 상생하는 가운데 더 발전해서 오케이온에도 도움이 될 만한 사업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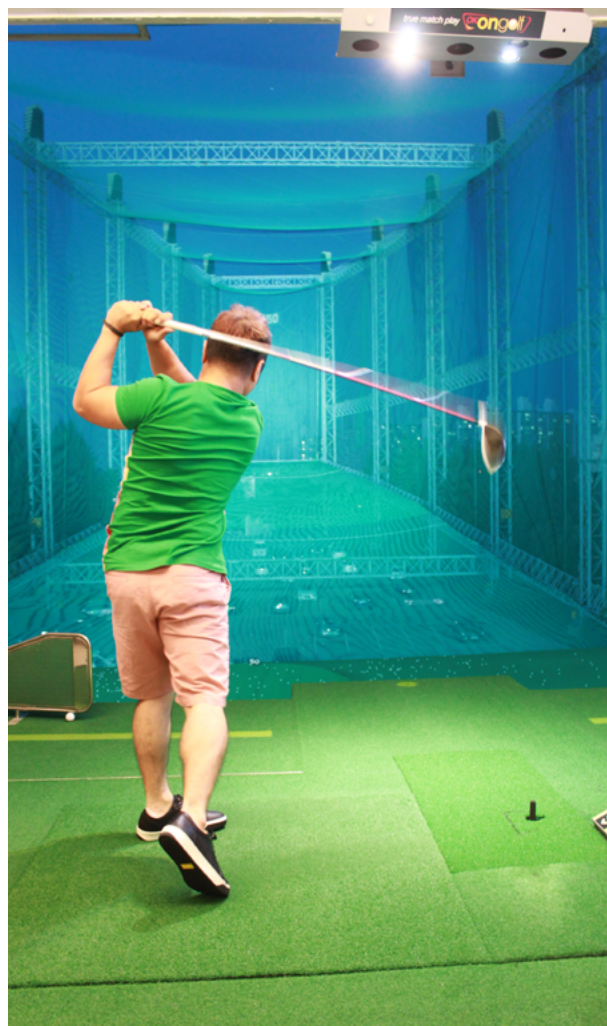
드래곤 골프클럽내 회원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4,000명 이상의 회원들과 일일 이용객들로 유지되는 유서깊은 골프연습장에 위치선정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실내스크린 골프보다 비용이 비싸지 않은가를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타브랜드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비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Top골프에서 개최한 7월 대회는 참여 및 호응도가 좋았고 30만, 20만,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우승자는 평소 9언더파의 실력자로 코스가 까다로운 결승에서 2오버로 우승했다. 박재영대표는 10월 2회 대회를 차를 예정으로 상금과 참가규모를 늘려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유난히 좋은 가을날씨 탓에 필드로 향하는 골퍼들이 많다. 하지만, 박대표의 인심이 묻어나는 따뜻한 배려로 겨울시즌도 따뜻하고 편안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할 Top골프를 기대해 본다.

예약 및 문의 : 031-911-3316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81-4 드래곤 골프연습장 3층



개그맨 박준형, 정종철, 박휘순, 김시덕이 일산 드래곤골프클럽내 위치한 오케이온 골프 '야외 스크린 Top골프'에서 체험행사를 가졌다.

골프 7계명

1. 인(仁) : 버디와 파를 사랑하기 이전에 동반자를 먼저 사랑하고 캐디의 실수를 탓하지 않으며 배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골프를 멘탈 스포츠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운딩 도중 화를 내게 되면 결국 나쁜 스코어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멘탈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예(禮) : 출혈이 아무리 크다 해도 마지막 홀에서 배판을 부르지 않고 내상을 심하게 입어도 승패의 책임은 반드시 자신이 지며 18번 홀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연다.

이런 매너를 가지기는 정말 힘듭니다. 따라서 무조건 실력을 쌓아서 항상 내기에서 이기는 골퍼가 되어야 합니다. 18번 홀에서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열 수 있도록...

3. 미(美) : 적은 돈일지라도 정확하게 계산하며 결코 시비와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다.

캐디를 잘 활용해서 계산은 캐디가 하도록 하면 시비와 오해의 소지가 줄어 듭니다.

4. 강(強) : 저질 골프 기술자를 만나면 이를 단호히 응징하고 그들의 언행은 개나 소를 보듯 무시하고 잔인하게 제압한 후 돈을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

5. 용(勇) : 작은 거리의 기브, 멀리건을 기대하지 않고 소극적인 공략보다 적극적인 공략을 선호하며 오비와 해저드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6. 신(信) : 운을 기대하지 않으며 벼를 위해 우정의 오비를 날리며 스리 퍼팅으로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오비를 내어도 별 지장이 없을 경우를 잘 판단해서(전판의 결과에 따라 배판이 아닐경우 등등) 스코어 관리를 하며 스리퍼팅으로 다음판을 배판으로 만들 때를 잘 고려해서 스리 퍼팅의 즐거움을 나누도록 합니다.

7. 현(賢) : 캐디의 방정과 양탈을 잘 달래고, 간혹 무례하고 속임수에 능한 골퍼를 만나면 알아서 속아주며 속아주면서 매번 이기는 유연성을 발휘한다.

골프 7계명을 지키려면 결국은 연습을 통해 실력을 갈고 닦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라운딩 도중 화를 내게 되면 결국 나쁜 스코어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멘탈을 강화해야 합니다.



2 POINT 5만
1 POINT 10만
3 POINT 3만

2015년 10월 5일 ~ 2016년 01월 03일

위클리 신스테이블포드 챔피언십

핸디캡이 필요없는 점수제 방식의 새로운 대회입니다.
 각 스코어에 따른 점수를 획득해서 점수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 참여한 라운딩 스코어들의 총합이 높은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

신스테이블포드 룰

Points	Strokes taken in relation to par
+8 points	알바트로스 (-3)
+5 points	이글(-2)
+2 points	버디 (-1)
0 points	파(이븐)
-1 points	보기 (+1)
-3 points	더블보기이상 (+2 혹은 이상)

출인원시 추가 점수 : +5점
 18홀 플레이 시 추가점수 : +10 점

* 월 왕중왕 전 : 매주 우승자 4명중 성적 상위 2명이 맞짱대결로 월 왕중왕전 수상

대회 핸디캡 : 주우승자 -20, 준우승자 -10 (*3개월마다 초기화)
참가자격 : OK온골프 준회원 이상 (매장주, 매장관련 종사자 제외)
참가비 : 없음
로컬룰

1. 게임 영상 미존재시 시상 제외
2. 2개 계정 이상 계정 소유시 시상 제외
3. 수상자의 경우 동영상미 오픈 됩니다.
4. 중복시상불가: 상위상으로 수여
5. 게임 영상에서 세컨샷을 티 위에서 한 영상 존재시 실격처리 됩니다.
6. 동점시 참가횟수, 스트로크 최저타, 백카운터

주 수상

1등	2등	3등	7위	롱기	니어
10만 포인트	5만 포인트	3만 포인트	3만 포인트 (행운상)	2만 포인트	2만 포인트

월 수상

왕중왕 : 인테그라 드라이버 1개
준우승 : 인테그라 하이브리드 우드 1개

장타를 위해 꼭 체크해야할 7가지

많은 골퍼들은 첫 홀 티샷을 많이 어려워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7가지를 꼭 체크하시고 플레이를 한다면, 언제나 즐거운 라운딩을 경험 할 수 있다.



① 나의 구질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공 뒤에 서서 에이밍을 하며 동시에 나의 공이 어떤 탄도와 구질로 어디에 떨어질지를 미리 머릿속으로 2~3초간 그려본다.

② 티 높이를 확인 하자

티 높이는 공 1/2~1개정도는 높게 꽂는다. 그로 인해서 업스윙 궤적으로 공을 가격해 좀 더 많은 비거리를 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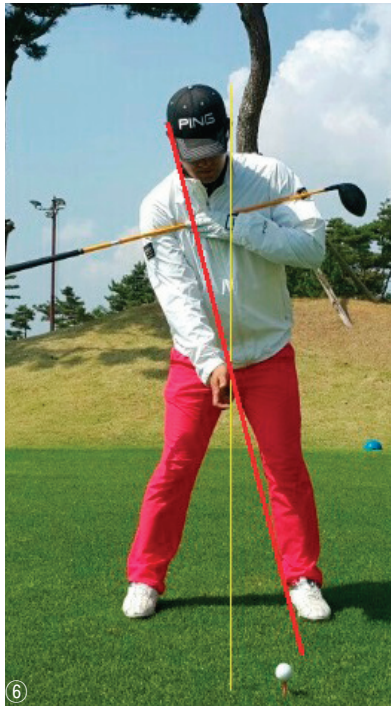
③ 그립의 인장력을 확인하자

클럽을 가슴높이로 든 후 그립의 인장력을 체크해 본다. 그립의 인장력의 크기를 전체 10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6정도로 잡는 것을 권장한다.



④ 볼 위치를 확인 하자

볼의 위치는 왼발 쪽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로 인해서 가속 구간에서 클럽헤드가 볼에 정확히 임팩트 될 수 있으며, 또한 임팩트 시 클럽의 헤드페이스가 위로 향할 수 있어 슬라이스를 방지하며 좀 더 많은 비거리를 낼 수 있다.



⑤ 스탠스 넓이를 확인하자

스탠스는 과도하게 넓지도 좁지도 않게 골반 너비만큼 벌리며, 이때 몸통회전이 가장 빠르고 몸의 꼬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⑥ 어깨가 타겟 반대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어깨가 타겟 반대방향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어야 어깨회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볼 위치와 마찬가지로 임팩트 시 클럽헤드 페이스의 앵글이 위로향할 수 있어 시원한 장타를 구사할 수 있다.



⑦ 안정된 피니시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라

대부분의 골퍼들은 연습장에서의 연습과는 다르게 피니시를 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큰 피니시를 하곤 한다. 평소에 자신이 연습장에서 하던 안정된 자세의 피니시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스윙을 시작한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 있다.

남경우 프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GHLDNJS
 Nicklaus/Flick Golf School 수료
 2014년 jtbc골프 'All that Swing' 시즌 1 출연
 2014년 JNGK테크니컬어드바이저 역임
 2013년 JNGK최우수지도자 수상
 PING골프 소속프로
 現잭니클라우스 스카이하일아카데미 근무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그곳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바르셀로나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이며, 항만규모와 상공업 활동에 있어서 에스파냐 제1의 도시이다. 교외지역을 포함해 해안평야에 펼쳐져 있으며, 스페인의 50개의 주, 그리고 17개의 지방 중에 가장 돋보이며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이다. 명문 축구구단 'FC Barcelona'로 스포츠의 열기가 가득한,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향기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바르셀로나 시민이라는 자부심과 따뜻한 친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찬, 9월 메르세 축제가 열리는 바르셀로나는 그 어느 곳보다 후끈하고 열정이 가득한 여행을 선사한다!



메르세 축제

'메르세 축제'라는 명칭은 '성모마리아의 축제'를 의미한다. 메르세 축제는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종교 축제이면서 동시에 화려하고 떠들썩하게 무더운 여름의 끝을 알리고 서늘한 가을을 맞이하는 축제이기도 하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메르세 축제 기간에는 수백 가지 행사가 바르셀로나 시 전역에서 펼쳐진다. 행사들은 카탈루냐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바르셀로나의 현대 문화 예술을 망라하는 것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코레폭스'(Correfocs)라는 불꽃 달리기, 인간 탑 쌓기, 거인들의 의행렬, 프로제션 쇼가 있으며, 그 밖에 음악, 연극 공연, 10킬로미터 레이스, 와인 페스티벌, 불꽃 뮤지컬, 에어쇼 등 남녀노소, 바르셀로나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돼 있다. 코레폭스(Correfocs)는 카탈루냐어로 '달리는 불꽃' 혹은 '불이 달린다'는 의미이다. 밤에 불꽃을 들고 폭죽을 터뜨리며 시내를 질주하는 놀이이다. 또 코레폭(Correfoc)은 메르세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행사에 속해, 보통 7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함께한다. 또, 인간 탑 쌓기는 코레폭과 함께 메르세 축제를 대표하는 행사이다. 이는 카탈루냐 지방의 전통 놀이로 수천 명이 산 자우메 광장을 가득 메워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카탈루냐 전역에서 초청된 참가 팀들이 견고하고 높은 탑 쌓기를 겨루는 것이다. 사람들이 쌓은 탑의 최고 기록은 10단이며, 이는 카탈루냐의 많은 축제들에서 시도되어 단 세번 달성한 기록이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그가 바르셀로나 남긴 유산의 도시

안토니오 가우디는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건축가이자, 비운의 천재 건축가이다. 바르셀로나는 도시 곳곳에 그가 남긴 유산으로 가득 차 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바르셀로나의 건축학교 졸업 후,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건축을 남겼다. 전형적인 그의 건축은 모든 면에서 곡선 이 지배적이며, 벽과 천장이 굴곡을 이루고 섬세한 장식과 색채가 넘쳐 야릇한 분위기를 풍긴다. 그의 작품은 1890년대를 경계로 하여 2기로 나누는데, 그의 진가

는 후반기 작품에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그는 건축 장식에 미로와 같은 구불구불한 공간의 이미지가 전체의 건축디자인으로 확장되고, 계획부터 구조 형태 및 세부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을 지배한다. 이처럼 독창적이고 참신하며 천재적인 안토니오 가우디의 대표적 건축유산들이 바르셀로나 시내 곳곳에 펼쳐져 있다.

동화 속 환상을 일으키다 '구엘 공원'

멀리 지중해와 바르셀로나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 넓은 부지에 조성된 구엘공원은 원래는 부유층을 위한 복합주택단지 목표로 만들어졌으나, 너무 선진적인 안목때문에 분양에 실패하였고, 세계 1차 대전으로 공사가 중단된다. 나중에 구엘이 죽고, 구엘의 가족이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바르셀로나 시에 기증하였고 현재는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공원 설계는 가우디 건축 스타일의 독특함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직선이 아닌 곡선을 위주로 한 건물들, 어디서나 시선을 잡아 이끄는 화려하고 독특한 모자이크 장식과 타일,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나타내기라도 하듯 위태롭게 기울어 있는

나선형의 층계, 깨진 도기 조각으로 사치스럽게 장식해 불협화음 속의 묘한 조화를 느끼게 하는 난간 장식, 자연미를 살려 꾸불꾸불한 길과 인공 석굴들, 어느 것 하나 '가우디답지' 않은 것이 없다. 구엘공원은 마치 공원이자기보다는 동화 속 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 환상을 불러 일으키는 곳이다. 가우디 특유의 모자이크로 장식된 건물과 자연이 어우러져 초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과자의 집처럼 생긴 건물이나 반쯤 기울어져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인공석굴의 어디쯤에서, 혹은 꾸불꾸불한 산길 어디에선가 동화 속 요정이라도 만날 것 같은 느낌이다.



Cadillac Beautiful Wedding Event

당신을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을 캐딜락이 함께 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잊지 못할 웨딩 이벤트를 신청하세요!

서비스 리스트

- 결혼식 당일 차량 픽업 서비스 제공
- 웨딩 카 디스플레이 적용
- 전문 운전기사

모집기간 - 1차: 09월 09일 ~ 09월 21일 / 10월 결혼식 예정 커플 대상
- 2차: 09월 22일 ~ 10월 21일 / 11월 결혼식 예정 커플 대상
- 3차: 10월 22일 ~ 11월 21일 / 12월 결혼식 예정 커플 대상

당첨자 발표 - 1차: 09월 25일 - 2차: 10월 25일 - 3차: 11월 25일

Wedding Event 신청하기 >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을 CTS와 함께! 캐딜락 CTS, 뷰티풀 웨딩 이벤트

9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쌍의 신혼부부에게 웨딩카 및 의전 서비스 제공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다각도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할 것

지엠코리아(주)(대표 장재준)가 올 가을과겨울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럭셔리퍼포먼스 세단 '캐딜락 CTS'를 웨딩카로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 결혼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캐딜락 뷰티풀 웨딩 이벤트'는 9월 9일부터 21일까지 (10월 예식 대상),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월 예식 대상),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월 예식 대상) 총 세 차례에 걸쳐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당 기간 예식을 앞 둔 커플은 CTS 마이크로사이트(www.allnewcts.co.kr) 또는 캐딜락 홈페이지(www.cadillac.co.kr)에 간략한 사연을 올려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예비부부 세 쌍에게는 예식 당일 품격 있게 장식한 CTS 웨딩카와 함께 메이크업샵에서부터 결혼식장, 예식 후 공항 또는 호텔까지 전문 운전기사의 의전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엠코리아 장재준 사장은 "지난 상반기 웨딩 이벤트에 보내 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CTS의 특별함으로 큰 감동을 선사하고자 올 가을 또 다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캐딜락의 고품격 감성을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오는 25일 CTS 마이크로사이트와 캐딜락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2차와 3차 당첨자는 10월 25일과 11월 25일에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 웨딩 이벤트에 보내 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CTS의 특별함으로 큰 감동을 선사하고자 올 가을 또 다시 이벤트를 마련했다

쌍용차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서 티볼리 디젤 유럽 출시

디젤 모델과 함께 롱보디 및 정통 SUV 콘셉트카 동시 선보여

롱보디의 양산형 콘셉트카 XLV-Air와 정통 SUV콘셉트카 XAV-Adventure 세계최초 공개

디젤 선호의 유럽시장에 티볼리 디젤 모델 공식 출시, 라인업 강화로 유럽 시장 판매 확대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www.ssmotor.com)가 프랑크푸르트모터쇼를 통해 유럽시장에 티볼리 디젤 모델을 출시했으며, 내년 초 출시를 앞둔 티볼리 롱보디의 양산형 콘셉트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등 유럽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2015프랑크푸르트모터쇼(InternationaleAutomobil-Ausstellung)' 프레스테이 행사에서 쌍용차는 558㎡ 면적의 전시장에 내년 초 출시 예정인 티볼리 롱보디의 양산형 콘셉트카 XLV-Air와 정통 SUV 콘셉트카 XAVAdventure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코란도 C와 티볼리 등 주력 모델을 전시하여 참가 관계자 및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쌍용차는 이번 모터쇼의 전시 주제를 <TIVOLI Evolution(티볼리의 진화)>으로 정하고 기존 가솔린에 이어 디젤 모델을 출시하는 한편, 내년 출시를 앞둔 롱보디 콘셉트카 XLV-Air와 정통 SUV 콘셉트카XAV-Adventure까지 티볼리 플랫폼에서 파생된 흥미롭고 다채로운 라인업을 선보임으로써 시장의 변화와 열망에 응답하는 동시에 쌍용차의 미래를 제시했다.

특히, 효율성을 중시하며 모든 차종에서 디젤 모델의 선택 비율이 높은 유럽에서 티볼리 디젤이 공식 출시됨으로써 현지시장에서의 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디젤 모델은 지난 7월 국내 출시 후 뛰어난 연비는 물론 한층 강화된 주행성능으로 호평 받았으며, 가솔린 모델에 이어 티볼리의 신차효과를 지속시키며 쌍용차의 판매 상승세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이번 모터쇼에 전세계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대리점대회를 개최하고 비전과 판매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며,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활성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신규 디스트리뷰터의 발굴과 신형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이번 모터쇼에 전세계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대리점대회를 개최하고 비전과 판매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OKongolf HD

스크린골프의 새로운 시작!
싱글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스크린골프

오케이온골프 스프린시스템

상위 1% 골퍼를 위한 싱크로율 99%의 중정밀 시스템!
100% 리얼리티 필드를 구현하는 유일무이한 시스템!

키메라센서라고 다 똑같은 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키메라 센서는 볼의 스핀량을 추정치로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정확한 스핀에 의한 스핀량을 측정하고 그 스핀량을 실제 움직임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오케이온골프만의 기술력입니다.

자연을 담은 "네이처" 프로그램

- 울퉁불퉁한 코스와 풍경, 프로그램에 따라 자연의 온도에 따라서는 환절기 프로그램
- 지형의 고저, 중저, 배양의 차이, 자연의 풍광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연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제 플레이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 새로운 코스와 풍경,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제 플레이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 경기 스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 : Tel. 031-8017-7252 www.okongolf.co.kr

DoggaebeeGolf

길다! 비거리!

드라이버 맞아?
도깨비 방망이네!

초대형헤드 -
초점량드라이버 -
중반발력헤드 -
Royal Touch 샤프트 -

(주)도깨비골프 ☎ 1899-9030 www.도깨비골프.com

Nikon Transitions

눈 보호와 편리함의 만남, 니콘 트랜지션스

실내에서는 안경렌즈로 편하게, 실외에서는 선글라스로 눈보호와 스타일을 한번에

Grey 자연스러운 컬러와 시력 Brown 가장높은 대비감도 **NEW** Green 스타일리쉬 그린

- ✓ 눈 건강 | UV로부터 100% 눈 보호 + 탁월한 눈 피로 감소 기능
- ✓ 편리함 | 하나의 렌즈로 실외와 실내 생활을 동시에!
- ✓ 지속성 | 높은 대비감도의 브라운, 그레이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스타일리쉬 그린!

facebook.com/nikonlenswear
www.nikon-lenswear.co.kr

New 2015 피팅브랜드의 선두주자

INTEGRA

INTEGRA SOOLONG 460cc CUP FACE TECHNOLOGY I 10.5

커스텀오더가 가능한
내가 만들어 쓰는 드라이버

미국 특허 획득 (US PATENT : 465535)

CUP FACE

페이스 플레이트(타구면)가 헤드의 스커트 영역으로 통합되어 용접면을 뒤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스위트팟을 넓게 확장시키고 스프링효과를 높여 반발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Quadratic IV Driver Soolong 450R Driver Soolong Fairway Wood Soolong Hybrid Wood Soft Cast Wedge Black Nickel Putter